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서구청 취업정보센터

- 상담실 : 서구청 본관 2층 주민생활지원과
- 구직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 전화 : 560-4476 / 팩스 560-4479

전국고용정보전산망(<http://work.go.kr>)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의회보

2008년 통권 제22호

CONTENTS



04 제2차 정례회 개회사 | 서구의회의장 강성구

06 제5대 의원현황

08 결의문 |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촉구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2 언론에서 바라본 서구의회 |
우리일보 · 경기일보 · 인천신문 · 경기신문 · 중부일보

15 의원기고 |
민·관 지역 사회복지 체계 구축 연찬회를 다녀와서... · 송영우 의원
서구 발전의 중심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대 환경관광명소로 · 전원기 의원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의회의 운영 · 홍순목 의원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 구재용 의원
역사적으로 위기에 우리나라민은 강했다 · 고월출 의원

26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9 주부의 집안청소 잔머리 노하우

30 문학마당 | 1. 용의머리산과 구성필의 무덤
2. 호랑이 잡은 포수 오강산

32 공무원 한마당

33 건강상식 | 공수병

34 취업센터

35 투고안내 및 청원 및 진정, 의회방청안내

- 발행일 2008년 11월(제22호)
- 발행인 의장 강성구 ●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본지에 게재된 내용중 일부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



서구의회 의장 강성구

존경하는 4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다사다난 했던, 戊子年 한 해도 어느덧 의정을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155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41만 구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8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역사 232년만에 『오바마』라는 첫 흑인 대통령 당선으로 역사의 신 새벽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도 변화와 열망으로 인종의 벽을 허물었으며,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아시아인이든,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메시지로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인의 희망과 사랑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서구는 인천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

의 발판을 다져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2008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사업과 더불어 구민과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오랜 진통 끝에 빛을 본 석남녹지 조성사업의 준공, 그리고 검암·경서동의 국민체육센터 준공,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하여 석남동 중1-74호선과 동일 폐차장 인근 소규모 도로 개설 사업의 준공은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땀방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의 위축과 실물경제의 침체로 우리 주변 환경은 구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사랑하는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숲에서 길을 보이지 않을 때는 높은 곳을 찾아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하며, 은행은 마른논에 물을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실체를 알려면은, 우리안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사랑하는 구민, 공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상생하여 실물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디자인 고품격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지역에는 가좌, 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 검단신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등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구도 이제는 변화하는 디자인 감각의 시대에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21세기 u-city로 발전하기 위한 구민 모두의 『아이디어 뱅크』의 힘을 합치고 특히, 우리주변에 있는 주민의 쉼터공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우리 서구가 강남에 부럽지 않는 인천 최고의 「아름다운 메카 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디자인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구민행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동절기 화재, 폭설, 한파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지난 번, 미국 애리조나 주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18만ha와 4백 여채의 가옥을 태워, 전 세계를 놀라게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겨울에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감시하는 습관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파손등 설해방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관리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1만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과 노인, 실직자 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를 마무리 하고 다가올 기축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구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 안을 심사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잘못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살림살이를 챙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 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戊子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강 성 구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현황

... 의 장 ...



강 성 구

(신현원창, 석남1,2,3동)

... 부의장 ...



송 영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



전 원 기

(검단1,2,3,4동)

... 간 사 ...



박 구

(가정1,2,3동)

... 위 원 ...



홍 순 목

(검단1,2,3,4동)

... 위 원 ...



구 재 용

(검암경서동, 연희동)

... 위 원 ...



최 용 환

(신현원창, 석남1,2,3동)

기획총무위원회

●●● 위원장 ●●●



임 동 주
(가좌1,2,3,4동)

●●● 간 사 ●●●



최 용 환
(신현원창, 석남1,2,3동)

●●● 위 원 ●●●



전 원 기
(검단1,2,3,4동)

●●● 위 원 ●●●



안 생 준
(가좌1,2,3,4동)

●●● 위 원 ●●●



김 영 옥
(비례대표)

●●● 위 원 ●●●



고 월 출
(비례대표)

복지도시위원회

●●● 위원장 ●●●



전 재 안
(가정1,2,3동)

●●● 간 사 ●●●



구 재 용
(검암경서동, 연희동)

●●● 위 원 ●●●



이 종 민
(검단1,2,3,4동)

●●● 위 원 ●●●



홍 순 목
(검단1,2,3,4동)

●●● 위 원 ●●●



민 태 원
(검암경서동, 연희동)

●●● 위 원 ●●●



박 구
(가정1,2,3동)

●●● 위 원 ●●●



송 영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촉구 건의안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40만 서구민은 물론, 300만 인천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2007년 4월 쿠웨이트 OCA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이는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 이어 또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민국 관문의 도시인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인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말끔히 씻어내고 국가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 국회, 재계, 체육계 등을 망라한 각계각층이 한마음이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발전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1회성 행사로 폄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최지인 인천만의 문제로 치부하여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의 불투명한 전망과 국가신임도의 추락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관련하여 OCA규정에 의하면 개·폐회식 행사를 위한 시설규모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신설될 주경기장은 고정식 3만석, 가변식 4만석 규모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흑자운영 시설로 설계해 나가고 있으며 2014년 이후 320여 만명이 넘을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인구의 증가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대회 수요를 감안하여 경기장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3.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의 도시경쟁력만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하는 것인 만큼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사항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문학경기장의 재활용을 고수한다면 대회시설 인프라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10월까지 OCA에 제출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이는 국제적인 신뢰실추는 물론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져 선진국으로 비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는 정부가 재활용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학경기장에 대한 미련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주경기장 신설의 필요성을 분명히 깨달아 주경기장 신설이 계획대로 확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08. 10.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I. 감사개요

- 1. 기 간 : 2008. 12. 2(화) ~ 12. 8(월) [7일간]
- ※ 감사대상기간 : 2007. 7. 1 ~ 2008. 10. 31일 현재

II. 감사일정 및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

일 정	피수감기관(부서)	감사장소	비고
【제1일차】 2008.12.02(화) 10:00	○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 ○ 기획홍보실 ○ 교육지원과 ○ 재 무 과	기획총무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2008.12.03(수) 10:00	○ 총 무 과 ○ 세 무 과 ○ 민원봉사과		
【제3일차】 2008.12.04(목) 10:00	○ 지역경제과 ○ 재난관리과 ○ 시설관리공단		
제4일차】 2008.12.05(금) 10:00	○ 동 주민센터 ○ 보 건 소 ○ 검단보건지소 ○ 검단출장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보 건 소 보 건 소 검단출장소	현 장 현 장 현 장
【제5일차】 2008.12.08(월) 10:00	○ 강 평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회 의 실	

○ 복지도시위원회

일 정	피수감기관(부서)	감사장소	비고
【제1일차】 2008.12.02(화) 10:00	○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서비스과	복지도시위원회 회 의 실	
【제2일차】 2008.12.03(수) 10:00	○ 문화체육과 ○ 환경보건과 ○ 위 생 과 ○ 청소행정과		
【제3일차】 2008.12.04(목) 10:00	○ 건 설 과 ○ 건 축 과 ○ 도시개발과 ○ 시책지원팀 ○ 녹지경관과		
【제4일차】 2008.12.05(금) 10:00	○ 토지정보과 ○ 교통행정과 ○ 교통민원과		
【제5일차】 2008.12.08(월) 10:00	○ 강 평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분기별 안건 목록



구분	의안명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제153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촉구 건의안	본회의	원안가결
제1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도시	원안가결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복지도시	원안가결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	미상정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복지도시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	복지도시	원안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	원안가결

○ 2008년 8월 28일 목요일 우리일보 보도자료

서구의회, 검단지역상가 의무이용기간 폐지 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로 인한 과도한 규제 완화·폐지 요청

인천 서구의회는 27일 열린 제152회 2차 본회의에서 검단지역상가 최초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정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구의회는 건의서에서 “검단지역은 지난 5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4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허가용도에 맞게 최초분양자만이 사용토록 되어있다”며 “의무이용기간 규정으로 상가신축 시 분양이 어려워 유치권 행사와 경매 등이 속출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매도 및 임대할 수가 없어 개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과 범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국내경제 또한 급격한 하락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아파트 분양자의 전매금지 기간 완화와 양도세부담 일부 해소 등 규제완화 정책과 같이 서구의회는 토

지계약허가로 인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완화 혹은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비도시 및 용도미지정 구역을 제외한 검단지역 7.18㎢가 해당되며 지난 2003년 5월부터 5년간 지정됐다.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목 의원(검단1,2,3,4동)은 “주민들이 국토해양부 민원을 통해 9월 중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 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요구와 건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집행부도 의무이용기간이 부동산 침체와 경기침체에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면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 2008년 9월 4일 목요일 경기일보 보도자료

“지하철 9호선 검단신도시까지 연장을” 서구의회 1만명 서명 받아 시·국토부 전달

인천서구 검단주민 1만명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김포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을 김포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서 서울과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를 잇는 광역도시철도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3일 인천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을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단주민 1만명의 서명을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등에 이날 전달했다. 내년 5월에 준공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서울 방이동 ~ 김포공항역 구간을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주민들은 검단신도시가 광역도시철도망 없이 주택 9

만2천세대에 23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의회도 지난 6월 27일 제150회 정례회에서 검단신도시를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지하철 연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검단1,2,3,4동)은 “검단이 분당보다 큰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하철 연결은 필수적이다”며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의 기자

○ 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인천신문 보도자료

“AG 주경기장 신설” 목청 높인다

서구의회 긴급 임시회서 건의안 만장일치 서구,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 맞춰 결의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경기장 신설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에서 1일 의회가 긴급



개최지인 인천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회에 이어 서구도 2일 한나라당 이경재(서구 강화을)의원이 주최한 아시아경기대회 정책토

론회를 개최해 주경기장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서구는 2일 구청광장에서 자생단체 등 300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이날 153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 14명의 구의원이 공동으로 ‘아시아게임 주경기장 신설 촉구 건의안’을 결의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4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문학경기장의 재활용을 고수한다면 대회시설 인프라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10월까지 OCA에 제출해야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해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이후 인천 인구는 320여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지역발전의 호재인데 정부는 이를 1회성 행사로 폄하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이 아닌

론회에 맞춰 구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대대적으로 토론회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자생단체, 참전전우회, 자원봉사센터, 서구유치추진위원회, 공무원 등 약 325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축구구호를 외친 뒤 이훈국 구청장 등과 함께 여의도로 출발하게 된다. 한편 인하대학교 체육동문회와 체육부 감독, 선수단도 1일 주경기장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시아경기대회는 불과 5년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37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 건설과 선수촌, 미디어촌 확보는 물론 주경기장 건설마저 결정이 미뤄지는 등 위기상황이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경기장 신설을 조기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인하대 교정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문 기자

○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경기신문 보도자료

서구의회 15일부터 임시회

건강센터 설치 조례 등 처리

서구의회(의장 강성구)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제15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동안 구의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중점추진 지표별로는 지식기반 경제활성화, 교육문화 특성화 전략, 주민 행복 증진, 주거환경 조성, 미래도시 환경 개선, 주민중심행정 등 구정 6대 프로젝트 및 중점과제의 계획에 대한 적정성·타당성·효율성을 심의하고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조례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사회복지시설인 천사의 집을 방문해 식사배식과 청소, 빨래 등을 봉사하고 시설임소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 2008년 7월 18일 금요일 중부일보 보도자료

서구의회 추가경정예산 2천901억 확정

서민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중점 - 일반회계 37억, 특별회계 33억 증가

인천시 서구의회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 2천901억으로 확정했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당초예산보다 409억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2천776억원, 특별회계 125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의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급성과 효과성이 결여된 사업비는 감액하는 대신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증액했다.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15.7%인 37억원, 특별회계는 35.8%인 33억원이 증가했다. 삭감내역은 ▶구정 20년사 책자 제작비 1천500만원(기획홍보실) ▶한국지역진흥재단 혁신과제 출연금 1천만원(기획홍보실)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2억1천315만5천원(기획홍보실)등이다.

이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는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교육지원과)으로 전환됐다.

이어 집행부가 부의한 7건의 조례안 가운데 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서구환경기본조례안, 서구옥외광고물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을 수정 가결했으며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의지에 맞춰 심도있게 논의가 결했다. 또한 서구의회는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자성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국제법과 실효적인 점유 원칙 측면에서 불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과목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는 행위는 자라나는 일본의 어린후세들의 정신을 쪼먹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또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최상철 기자



송영우 의원

민·관 지역 사회복지 체계 구축 연찬회를 다녀와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인기도 한 본인과 김영옥 의원 그리고 대표협의체 한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통합서비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장애, 청-중장년분과 협의체 위원 및 주민생활지원과 지준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77명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지리산 연찬회를 다녀왔다.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위해서다.

당일 7시20분께 서구청에서 출발한 버스는 생각보다 1시간이나 일찍 전주에 도착했다. 이덕(?)에 천년고도 왕조문화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시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차에서 내려보니 곧바로 기와로 된 한옥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경기전'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1410년(태종 10)에 창건한 것이란다. 입구에 들어서자 확 트인 오른쪽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뻗어 있는 나무들로 인해 공간들이 정갈스러우면서도 평화롭다. 서문을 지나 동문을 향하자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사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771년(영조 47)에 세운 '조강묘'가 반듯한 자세로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려 한쪽의 그림과 같다. 이렇듯 수려한 경관들로 인해 사극의 촬영지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40여분 밖에 주어지지 않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1250년 역사의 땅 전주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아침 일찍 서둔 탓에 식사를 챙기지 못한데다, 버스에서 주는 김밥은 아예 먹질 않았으니 허기가 진다. 그렇다고 전주까지 와서 의미 없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일. 그야말로 전주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자극하는 대표 음식이 있는데 바로 '전주비빔밥'이다. 평양냉면과 개성탕반과 더불어 조선 3대 음식의 하나인 전주 비빔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니 마음마저 여유(?)로워졌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다시 1시간여를 달려 연찬회가 열리는 지리산 일성콘도에 도착한 뒤 곧바로 특강에 들어갔다. 전북대학교 백종만 교수님이 '민관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시작됐다. 네트워크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구축의 기본 방향과 원칙

등에 관한 강의였는데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민과 관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여도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보자는 취지가 서려있다 하겠다.

‘지역사회복지’ - 최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지역중심의 복지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제도적, 법적 환경의 변화는 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요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간 협조를 통해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비스 조직들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킹(networking)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며 2005년 제도적, 법적으로 내놓은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가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이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

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앙 정부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전달체계 개편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과 관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governance 체계 구축과 아울러 서비스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망(網)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기체이자 네트워크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우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참여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와 반면에는 아직까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민과 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번 연찬회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강의 후 각 분과별 토론으로 들어갔다. 1시간이나 주어졌지만 시간이 부족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에 서구의 지역복지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감이 섰다.

우선, 내가 속해있는 통합서비스분과(분과장: 임종웅)에서는 해당 기관 근무자 파견 계획

인 희망복지지원단 계획이 단연 화두가 됐다. 파견된 사회복지사의 경우 결국 심부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통합관리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민과 관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전문가의 사전의견 수렴이라는 카드로 일단 봉합됐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용역 조사를 수혜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안건도 나왔다.

노인분과(분과장 : 김경숙)에서는 수급, 차상위계층 대상자도 안 되는 저소득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자 발굴 및 접근 방향을 비롯해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기준 합리화를 요청하는 정책건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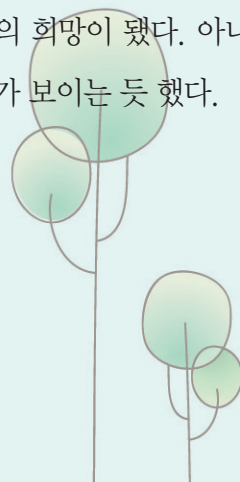
아동 - 청소년분과(분과장 : 김애란)의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차단감시단 설치추진계획(멘토연계)과 사회복지박람회 추진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고, 여성분과(분과장 : 오신성)에서는 내년도 여성분과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안건을 통해 무자 가정의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체계 확보의 중요성과 법률상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연구의 필요성 방법을 두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영 - 유아분과(분과장 : 이경애)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민회관에서 재롱잔치와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송편 만들기 행사 등 개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으며, 장애인분과(분과장 :

김광배)에서는 인프라확대와 예산확보 방안과 지적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연계 및 개발 방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청 - 중장년분과(분과장 : 이애향)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고용창출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된 대화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1천507m) 산행을 위해 이동을 했는데 노고단 정상을 가기 위해 마련된 성삼재주차장이 1천m고지에 있었다. 그런 탓에 계곡을 따라 이동하는 도로 옆으로 펼쳐져 있는 단풍은 올 가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들로 탄성을 절로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들뜬 마음을 안고 주차장에서 하늘 정원이라는 지리산 노고단 정상(1천507m)을 향해 올라가는데 조금 전까지 봤던 단풍들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고 다만 벌거숭이 나무들만 가득 찼다. 이미 낙엽이 다 졌다는 말에 다소 실망을 했지만 그 실망도 잠시 숨이 가슴까지 차 오른 탓에 오직 정상을 밟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렇게 오른 정상은 또 다른 나의 희망이 됐다. 아니 서구지역사회복지의 미래가 보이는 듯 했다.





전원기 의원

서구 발전의 중심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대 환경관광명소로

인천 서구지역의 발전은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꽃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규모 생태공원과 체육시설이 들어서 서구 주민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드림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드림파크 계획은 이미 서구주민들에게 꿈이 되었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녹색의 희망을 품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된 배경으로 볼 때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더 이상 매립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으로만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태공원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과 생태공원이 공존하는 공간인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까?

최근 공사에서는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

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연료화 할 수 있는 물질만을 선별하여 연료로 만들거나, 미생물작용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들의 설치계획과 거대한 숲을 조성하여 목재연료를 만들거나 유채꽃을 재배하여 유채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30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설치되는 1조 7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도권매립지에 추진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해 악취, 침출수, 비산먼지 발생 등 많은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이러한 폐기물자원화시설들과 바이오순환림, 태양광발전 시설이 건설되면 악취, 비산먼지 등의 효과적인 제어와 시설투자가 예상되어 주변지역 환경과 드림파크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곽웬스 42km 설치

수도권매립지를 다양한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환경 모범시설로 개발한다면 많은 국·내외 환경관련 전문가들에게는 환경명소로, 많은 일반인들에게 환경교육장으로서 인천 서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도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폐자원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난방 등 주변의 청라 및 검단신도시 건설로 소요되는 에너지로 활용할 경우 기존 폐기물처리로 발생하는 환경상 영향과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들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을 더 이상 반입하지 않으면서 공원으로만 조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드림파크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만,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조성은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연료화 하는 것이 아닌 반입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기 매립된 매립 부지를 다시 매립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및 지역의회에 사업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홍순목 의원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의회의 운명

현정부 들어서 청와대와 여야가 공히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정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100여 년을 끌어 오면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형의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중론이 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 도-시군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광역시도를 폐지함으로써 2단계로 축소하고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70-80만명의 70여개로 광역화시로 개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의 시도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도 해체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국회 내에 지방행정체계개편특위를 구성한 등이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100여 년을 고착화되어 온 행정구역을 단숨에 개편하기에

는 오랜 기간 쌓여온 기득권과 맞물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재개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달리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행정구역개편안을 내 놓고 있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으뜸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된 시대가 도래한 만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에 반대할 집단과 인사는 없을 것이다. 즉 60년대 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함께 중화학공업육성과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이룩한 경제 팽창으로 인해 장기간의 호황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경기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편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이 이미 IMF사태를 기점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지만 행정에 대해서만은 예외가 되어 왔으며 복지서비스 등의 확대에 의하여 행정조직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급격히 비대화 되어왔다.

그렇다면 과연 효율성에 근거한 행정구역개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도대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참여와 자치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임 사무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이는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지방분권화와 자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역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십여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국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야 했다. 그러나 수 차례의 시도는 용두사미로 그치고 과거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잡한 업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추진 주체는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율과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제로섬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행정구역개편만을 추구하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보와 재정 자율권의 부여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관계 재편 등의 지방자치 확대 방안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지방의회의 운명과 직결된다. 지방자치가 후퇴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활약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할이 없는 지방의회에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진행된다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서 지역과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에 무게중심이 실림으로써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효율성과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함께 도모되는 행정구역개편을 이끌어 낼 때 중앙과 지방이 나뉠 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의회도 맘껏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구재용 의원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대한 기여에 그 바탕을 둔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필자가 보기로는 서귀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목적인대로 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완료한 검암·경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일부지역의 공동주택지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려 했던 지역이었으나, 단독주택이 들어와야 할 대지에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조성되고 있다. 사업이 목적인바 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 졌는지 반성하고 차후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아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책임행정이 아쉬워 보인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지로 조성하려던 사업이 다가구 다세대 주거형태로 변경된 것도 문제지만 서곶로에 인접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더욱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완충녹지 실시목적은 소음등 공해를 예방하고 녹음 및 휴게공간을 조성,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하는 취지였는데, 이 또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지탄의 원초를 제공하는 완충녹지가 되고 말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사업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완충녹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고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결국 사업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서곶로에서 검암1지구로의 진입로가 차단되어 매우 불편하니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진입로만이라도 개설해 달라는 간절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또한 모두 묵살하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 준공된 현재의 결과는 어떠한가?

현장에 가서 보노라면 여기가 수억원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지구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수목의 규격 및 수량 등도 매우 허술하기만 하다. 이런 상태로도 준공허가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완충녹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생각이었다면 완충녹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건축물의 주 출입구가 녹지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건축 허가를 승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한결같이 완충녹지 띠를 향해 승인이 났고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녹지 곳곳에 통로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줘야 할 것이며, 당초 완충녹지 조성의 목적등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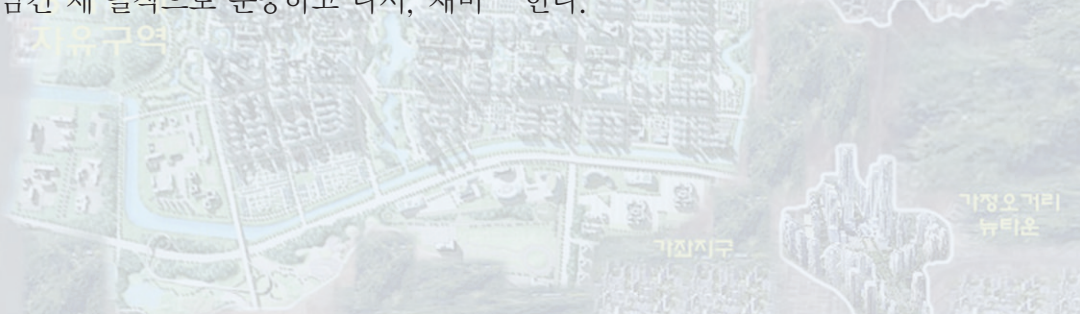
더불어 차후 추진되어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연희동 어디를 둘러보아도 과연 여기가 시정부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한 지역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토지주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해당 사업을 하고나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라도 지역의 토지주나 주민들이 가졌을 텐데 시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주체는 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 저기 문제점을 남긴 채 졸작으로 준공하고 나서, 채비

지 매각 대금이나 청산금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 백십팔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모두를 시정부가 가져가고 있다. 2000년 1월 28일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는『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 만들어진 도시개발법에도 같은 문구가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2004년 만들어진 『인천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관리의 주체는 시든 구든 상관없지만 시비나 구비 지원 없이 해당사업지역 토지주들의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그 비용으로 실시한 사업이 준공후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업지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토지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을 시정부의 재산인양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애매한 이 조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별 집행잔액을 하루빨리 해당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돌려보내줘야 한다.





고 월출 의원

역사적으로 위기에 우리국민은 강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외신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위기설 등을 뿔어내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명한 아시아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폐섹은 ‘한국이 아시아 투자등급 국가중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일 폭락을 거듭하는 증시·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집값·넘쳐나는 실업자 등 모든 상황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서민들은 이제 아픔의 소리마저 낼 기력을 잃은 듯하다.

내가 가끔 들르는 동네의 미용실이 평소보다 한가함에 의아해 하는 나에게 주인은 이제 서민들은 머리가 좀 길어도 파마를 해야 할 때가 되어도 그저 마냥 미루며 견디고 보자고 한다고 한다. 미용실뿐이 아닌 가좌시장의 상인들의 한숨소리도 이젠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있어도 알 수 있다. 서구는 개발의 호재로 제법 거래며 전세들의 물건으로 활발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많은 가게들이 유지비 걱정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고 드릴 말이 없다.

구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 이제 2009년 예산안심의 그리고 금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하는 정례회가 있어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준비와 각오가 그 어느 때 보다 다르다는 느낌이다. 지난 임시회에서 2009년 업무보고가 집행부로부터 있었다.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 계획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지금 비상한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예를 들면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방송국의 설립이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급을 요하는 일인지 재고를 요구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책정된 해외연수도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구민과의 고통 분담 그리고 국난 극복의 자세로 취소로 가닥이 잡혔다. 구의원의 본분인 구민의 대변자로 충실하기위해 때론 집행부의 견제자로 상황에 따라선 현 서구의 당면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고 했다. 세계의 석학과 경제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제적인 공조로 대처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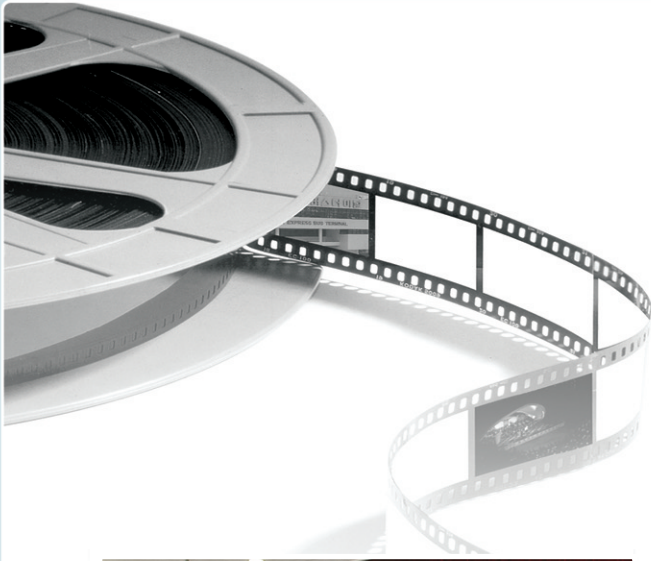
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이 위기로부터의 탈출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대응 방안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냉키 FRB의장과 폴슨 미 재무장관의 구제금융법안과 고단위 시장대책 추진 과정등 강력한 리더십에 시장의 평가도 호의적이며 국민도 신뢰하는 듯하다. 즉 대공황에 전문가인 ‘폴·버냉키팀’이 제2의 대공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퍼져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른 면은 우리의 경제팀에 보내는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고 시장의 시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며 여당일각에서도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 정책은 국민이 신뢰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때만 성공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하루 빨리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드림팀’이 구성되어 공포에 떨고 있는 서민들에게 안정과 꿈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의 특단의 방안들도 우리 국민의 신뢰와 힘을 합하는 결집의 노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노력 못지않은 우리의 각오와 희생 그리고 단결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최대의 구심축일 것이다.

IMF때 장롱속의 돌반지를 들고 나와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저력을 다시 보여 줄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News



신거북시장상인대학졸업식 - 8월 1일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도시축전
진행상황 설명회 - 8월 22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9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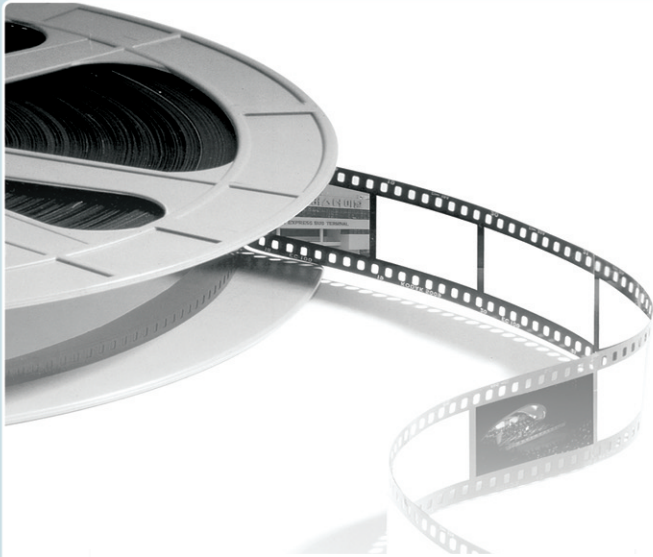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9월 8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9월 8일



서구 랑랑축제 개막식 - 10월 12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News



현장방문(천사의 집 봉사활동) - 10월 24일



검단3동청사 기공식 - 10월 28일



아시아 주경기장 서구유치 꺾기대회 - 10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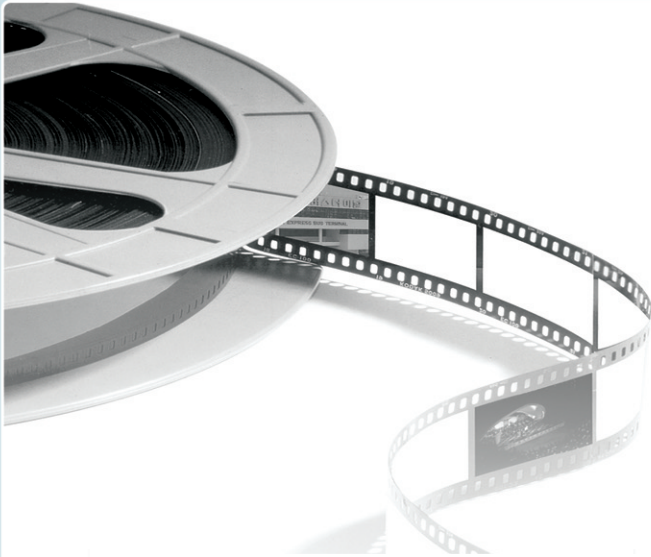
가정초등학교 서구의회 방문 - 10월 24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 특강(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 10월 6일



타시도 비교시찰(동해시 의회 방문) - 10월 9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Photo News



녹청자도요지전통가마소성시연회 - 10월 30일



지회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 - 10월 30일



석남안충녹지조성공사준공식 - 11월 5일



시·구의원 합동정책 간담회 - 11월 5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9월 8일



사회복지시설 천사의 집 방문 - 10월 24일

투부의 집안청소 잔머리 노하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곰팡이 고온다습한 여름엔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나쁜 미생물이 생겨나 건강을 위협한다. 미생물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름철 청결 관리의 관건. 건강한 여름을 위해 치우고, 닦고, 삶자.

1. 날 잡아 한번씩 대청소 했다.

☞ **매일 잔손질로 끝내자**

샤워 커튼은 항균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고르고, 샤워가 끝나면 창문과 문을 열어 물기를 말려준다. 세면대 밑 배수관에 물기가 맺혔다면 휴지 몇 칸 뜯어서 반드시 닦아줄 것. 곰팡이 생기고 귀퀴한 냄새가 배서 청소하는 것보단 백배 낫다.

2. 냉장고 전체를 칸칸이 닦는다.

☞ **생각날 때마다 한 칸씩..**

여름철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냉장고의 관리가 중요하다. 냉장고가 더러우면 각종 세균 감염이 쉬워지기 때문. 청소란 모이면 더 하기 싫어지고, 찌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하기 힘들어지니까 생각 날 때마다 한 칸씩 닦는다. 행주 대신 주방용 물티슈를 닦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

3. 물기 짝 빼고 공들여 버렸다.

☞ **사용한 기저귀를 짝아 쉽게 버린다.**

단출한 식구를 가진 집일수록 쓰레기봉투에서 물이라도 새면 냄새가 고약하다. 그만큼 쓰레기의 양이 적어 모아두었다가 버려야 하기 때문.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봉투 바닥엔 사용한 기저귀를 펼쳐서 넣는다. 물이 흐르지 않고, 냄새도 줄어든다.

4. 변기 청소 할 때마다 락스를 풀었다.

☞ **락스 풀 뚱에 솥 담가두기.**

비위 약한 당신, 가장 싫은 것은 화장실 변기 청소. 간단히 청소하려면 변기솔 받침대의 물구멍을 막고, 락스를 희석시켜 솥을 담가놓는다. 락스 냄새가 욕실에 배니까 방향제 쓸 필요 없고, 생각 날 때마다 솥을 문지르면 되니까 변기가 늘 깨끗하다. 단, 받침대 속 락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한다.

5. 쓰고 나면 바로 삶는다.

☞ **말려서 먼지 털어 한꺼번에..**

사실 걸레는 쓰고 바로바로 빨아야 하지만 그게 죽도록 싫다면 쓰자마자 먼지를 탈탈 털어 말린다. 말려서 모아두었다가 날 잡아 세탁기를 돌린다. 락스 한 스푼, 옥시크린 한 스푼 넣어 돌리면 걸레가 깨끗해진다. 모아놓는 게 싫다면 걸레를 쓰고 락스 푼 물에 담갔다가 쓸 때마다 헹궈서 쓰는 방법도 있다. 만사가 다 귀찮다면 마트에서 무향, 무취의 물티슈를 구입해 걸레 대신 사용할 것(무향, 무취가 아닌 제품은 닦아봤자 더 끈끈해진다)

6. 각종 세제로 힘들여 닦는다.

☞ **락스 묻힌 휴지로 수시로 문지른다.**

구석구석 찌든 때와 물곰팡이 청소도 만만치 않다. 일단 물에 락스를 타고 휴지를 적셨다가 실리콘 틈새나 찌든 때에 붙여둔다. 1시간쯤 지난 후 휴지로 덮어두었던 부분을 쓱쓱 닦고, 더러워진 휴지는 변기에 버린다. 변기 청소도 되고 타일은 깨끗해져 일석이조.

7. 두개로 돌려썼다.

☞ **여러 장 만들어 한꺼번에 빨다.**

걸레질 하다 빨고, 또 빨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걸레를 여러 장 만들어놓고 한 장씩 사용한 다음 마지막에 한꺼번에 빨아주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된다.

8. 걸레와 행주를 따로 삶는다.

☞ **지퍼백에 넣고 한번에 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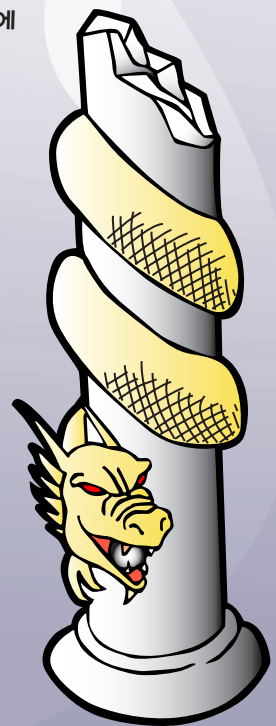
걸레나 행주 삶는 것도 만만치 않다. 여름 청결 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행주와 걸레 빨기와 삶아서 소독하기. 걸레를 삶을 때 행주를 지퍼백에 넣고 함께 삶는다. 한번에 두 가지를 삶아낼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



용의 머리산과 구성필의 무덤

조선 영조 때 구선복이라는 무관이 있었다. 청년기에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와 판의금부사를 지내며 권신이 되었다. 성격이 교만하고 방자하며, 사도세자를 축출하는데 앞장서 영조를 부추기고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를 감시하였다. 고의적으로 음식 씹는 소리를 크게 내며 "세자, 무엇이 먹고 싶소?"하고 야유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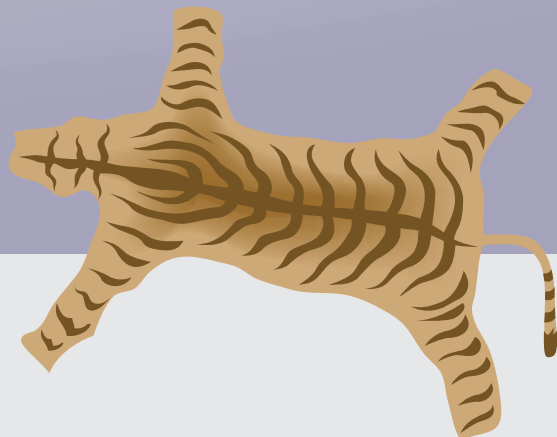
아버지 구성필이 죽자, 그는 오늘의 연희동 바닷가 용두산에 묘를 쓰고 묘막을 거창하게 세운 뒤 집입로를 만들었다. 연희동의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으며, 세 발 크기의 장대를 좌우로 흔들며 당지 않게 길을 넓히라고 백성들을 억박질렀다. 그렇게 길을 넓힌 뒤 그는 백마를 타고 아버지 묘를 왕래하였다. 그는 집안의 노복들도 포악하게 매질을 하였는데, 영리한 소년 중 하나가 15세에 탈출하여 복수하겠다고 20여 년 절치부심하며 힘을 길렀다. 소년 중은 그가 용두산 아버지 묘를 자주 오가는 사실을 알고 행려승 차림으로 변장한 뒤 대면하였다. 그는 소년 중을 알아보지 못했다. 풍수지리에 밝은 스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며 아버지 묘의 풍수에 대해 물었다. 용머리산의 머리부분에 산소가 있으니 자손이 크게 될 것이나, 다만 산혈에 위험이 있으니 그 곳을 파헤치라고 했다. 그것은 풍수지리상 파헤쳐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구선복은 다시 연희동 백성들을 동원해 혈을 파헤쳤다. 그래서 구선복의 아비 묘는 흉한 풍수조건으로 변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등극하고 구선복은 권신의 자리에서 실각하고 끝내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다. 그 아버지의 묘는 계속 용두산에 있었으나 후손이 절손되어 아무도 찾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그 명당자리는 해주정씨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호랑이 잡 은 포수 오강산

오강산은 조선말기에 모월곶면 고잔리에서 광대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기에는 광대생활을 하던 그는 외국의 이양선을 막기 위해 주둔했던 포군들에게서 총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명사수임을 알게 된 포군들은 그를 열심히 가르켰다. 그리하여 그는 포수가 되었다. 화승총 한 자루를 메고 전국을 돌며 유명한 포수들과 동행해 경험을 쌓았다. 그는 몇 달에 한번 고향에 와서 가족들 곁에 머물렀다. 어느날, 성초 영감과 그의 아내가 마를 캐러 호두산에 올라갔다. 성초영감의 아내가 나무 밑에서 큰 호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움직여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에 호랑이가 잠을 깨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어머나" 소리를 외치며 남편에게 달려갔고, 성초영감은 아내를 쫓아 달려온 호랑이에게 엉겁결에 흙모래를 한 줌 뿌렸다. 그것이 눈에 들어갔는지 호랑이는 길길이 뛰었고 그 바람에 성초 영감의 등판에 호랑이 발톱이 찍혀 상처가 났다. "사람 살려주세요! 호랑이가 나왔어요" 부부는 크게 외치며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오강산이 화승총을 들고 획획 몸을 날려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총성이 나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를 잡았소, 나는 가족만 필요하니깐 어서 와서 살코기와 뼈를 가져가시오" 사람들은 앞을 다뒀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의 발톱까지 잘라 나눠 가졌다. 오강산은 호피를 한양에 가져가 큰돈과 바꾸었다. 소문을 들은 부평 현감이 오강산을 불러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범을 잡았으면 내게 알려야 할 것이지 왜 숨겼단 말이냐, 당장 호피를 바치거라." 오강산은 다시 한양에 가서 자기가 잡은 것보다 조금 작은 호피를 사서 현감에게 바쳐야 했다. 그래야 물불기 50대를 맞는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심곡동 허은주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느낀점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고 내가 근무한 햇수를 세어보니 16년이다. 이 정도 일했으면 달인의 경지에 다달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나의 노력 부족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현 제도를 탓하고 싶다.

여러해 동안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해대기도 정신이 없었기에 다른 분야에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구청에 입문해서 보니 법인, 단체관리, 시설위탁, 인가, 지도점검, 시설개축 등 너무도 방대하여 비중이 커서 중압감이 들었고 나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내세우기가 무색하였다.

현재 내가 일하는 복지서비스과는 복지건축과라고 해야 한다고들 농담을 하곤 한다.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건물까지 지어야 하니 말이다.

내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여러 날들을 돌이켜 보면 민원인들과 부딪치며 싸우기도 하고 괴로워했던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 아주 가끔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로 인해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에게 당한 고통이 더욱 크게만 느껴진다. 근무 경력이 오래 되어도 그러한 두려움이 줄어들 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는 일들을 같이 의논해 주고 상의할 상사가 필요했는데 늘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해야만 했다. 으레 남루하고 소외된 노인과 부랑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은 내 차지였고 주변의 동료들은 측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고 기억된다.

그간 민원들과 동거동락하고, 다년간 받아온 친절교육과 결혼 생활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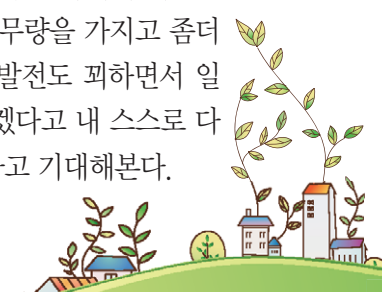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의 문제, 법을 악용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괴로워 하는 나 자신과 후배들을 보면 참 안쓰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2년전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기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팀이 폐지되었다. 과거에 비해 서비스가 너무 방대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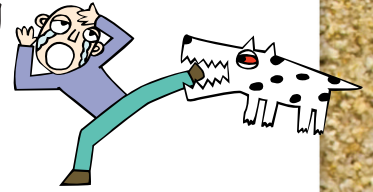
사회복지가 어디까지인가?

부모 자식 형제간의 인연을 끊었는데, 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맡는지? 회의가 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의 재량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복지도 경쟁 체제에 돌입하여 서비스도 바우처를 통하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인 요소도 많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의지만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분야와 양 때문에 절망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내가 맡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소 체험하고 귀 기울이고 건의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다짐해본다. 난 결코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좀더 멋 훗날 아직 입문하지 않은 나의 후배들은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적정한 업무량을 가지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남들처럼 자기 발전도 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런 날이 정말 오리라고 기대해본다.



공수병에 대한 건강상식



인천시 서구보건소 관리의사
김 기 봉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간혹 개에 물렸거나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상처를 입어 공수병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 공수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의학적으로는 공수병(rabies)으로 불린다. 문헌상으로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전염병으로서,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인도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광폭한 행동’을 뜻하는 “rabhas”라는 단어로부터 어원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상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전부터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수병은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다만, 사람과 구분하여 동물에서 발생된 감염증은 광견병이라고 칭한다.

병원체로는 공수병 바이러스(Rabies virus)가 원인병원체이며, 생체내에서는 신경조직에 매우 높은 친화성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수병 바이러스는 숙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온혈동물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파경로를 보면,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뇌에서 증식된 공수병바이러스는 원심성 신경분지를 따라 말초부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특

히 많은 신경분지의 지배를 받는 침샘으로 다량 배출하게 된다. 광견병 동물에 의한 교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량 함유된 타액이 인체 내에 직접 접종되므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동물이나 사람 모두에서 대부분 교상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은 주로 비무장 지대를 넘어온 너구리에 물린 소와 개들에게서 호발한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발생은 너구리 혹은 너구리에 의해 감염된 개가 사람에게 교상을 입힘으로써 유발되는 것이 가장 흔한 전파과정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2006년도의 경우 12월 중순 소 7마리, 개 4마리, 너구리 1마리에서 광견병이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수병 위험지역은 주로 경기일대와 강원지역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에 물린 경우는 상처가 심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개 관찰이 필요하다. 광견병에 걸린 경우의 개는 이 기간안에 광견병증상이 나타나므로 교상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접촉한 동물의 상태가 10일간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처의 상태가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되도록 예방접종을 맞추고, 야외에서 야영활동을 할 경우에는 야생 동물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공수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 구인·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취업을 연결하며,
-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적성과 기능에 맞는 직장을
- 일손을 구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필요한 노동력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실업자의 취업을 도모

- ◆ 위 치 : 서구청 본관 2층 주민생활지원과 내
- ◆ 근무시간 : 주 5일(평일 09:00-18:00)
- ◆ 전 화 : 560-4476 / 팩스 : 560-4479
- ◆ 이용방법 :

취업정보센터에 방문하시어 아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전국고용정보전산망(<http://www.work.go.kr>)을 통한 다양한 구인, 구직 서비스와 취업알선을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업알선 및 구인·구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구직자 : 주민등록증, 비치된 구직표
- 구인자 :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Fax를 통하여 구인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원	진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 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의회방청안내

서구의회는 구민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서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안내

서구의회에서는 항상 열린 의회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안내, 회의록 검색, 의정소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료 조회 및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을 하시려면

- ◆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 방청문의 :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 560-5852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 섭취나 킁연행위
-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투고안내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고분야 :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 발행주기 : 1년 2회(2, 8월 25일)
- ◆ 분량 : 원고지 7-8매 내외
- ◆ 제출기한 : 매월발행 전월 말일(1월 31일, 7월 31일 ; 수시접수가능)
- ◆ 기타사항 :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사진 1매
- ◆ 보내실곳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